

1920년대 소련 한인사회의 한국어문 표준화운동*

고영근**

1. 들어가면서

한국어문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기운은 국권상실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총독부는 그 나름대로 <언문철자법>을 제정하였고, 주시경학파는 또 그 나름대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1930년에는 총독부로 하여금 <언문철자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한편, 1933년에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제정·공포케 하였다. 필자는 주시경이 죽은 다음 해인 1915년부터 1930년대 중반에 이르는 한국어문의 표준화운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¹⁾ 이 자리에서는 반도 안의 표준화운동이 반도 밖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 이 글은 <한국어문의 표준화연구>(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공동주제 “한국근대화연구”, 1997)에서 뽑아 낸 것임을 밝혀 둔다.

** 본과 교수

1) 관련 논의는 고영근(1997b)를 보라.

러시아/옛 소련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이 러시아 땅으로 삶의 발길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1863년이였다. 그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이 계기가 되어 이주민은 급격히 늘어 1920년말 소련 거주 한인들의 수는 25만명에 육박하였다.²⁾ 러시아 땅에 거주한 한국인들은 집단촌락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모국의 언어를 보존할 수 있었고 특히 1910년 이후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이 그곳으로 망명을 하는 일이 많아 신문도 간행되고 교육기관도 설립되어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17년 10월 혁명 이후로는 민족어의 보존과 발전을 장려하는 소련 공산당의 언어정책에 힘입어서 그러한 기운이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³⁾

이곳에서는 1930년에 발간된 《고려문전》과 기타 관련자료를 발판으로 삼아 러시아/소련 한인사회의 한국어문의 표준화운동의 전말(顛末)을 밝혀 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곳 한인사회의 표준화운동이 당시 왕성하게 진행되던 반도 안의 표준화운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풀어 보려고 한다.

2. 표준화에 관련된 배경적 문제

한국인과 러시아 사람들이 접촉하는 수단으로 처음에는 한국의 문자를 키릴 문자로 전사하여 한국어에 접근하거나 러시아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주시경 등의 철자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한국문자를 가로풀어쓰기하는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음의 일절은 1914년 3월에 출판된 《대한인정교보》 9에서 따 온 것인데 가로풀어쓰기의 기운이 일찌부터 러시아의 교민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관련 정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12의 “소련” 표제항을 보라.

3) 소련의 한국어 표준화에 관련되는 정보는 킹(R. King)(’92), 간노(菅野裕田)(’97)에서 얻을 수 있다.

- (1) 그러나 이제 이 모음과 자음을 가로 쓰기로 하면 활자는 불과 스물에 지나지 못할지오 채주 식자에 엮는 시간이 또한 적지 아니할지며 그 깨끗하고 보기 쉬움이 또 얼마나 하리오 그러나 이리하라면 문법도 만들어야 하겠고 여러 동포가 각각 힘을 써 이글 보기를 너혀야 할지니 처음에는 비록 보기 어려운 듯하나 얼마 아니하여 전보담 훨씬 보기 쉽고 편리한줄을 알리이다.(원문대로)

현재의 상태대로 한글을 묶어쓰면 한자에 뒤지지 않게 활자를 만들어야 하니 경비와 시간에 있어 큰 손해를 본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가로풀어쓰기의 경제적 이득을 들면서 동포들에게 풀어쓴 글자를 부지런히 익히기를 당부하였다. “우리 어이”라는 글에는 ‘암눗, 수눗, 씨, 읍’ 등의 주시경적인 용어가 보인다. ‘어이’는 글자, ‘암눗’은 모음, ‘수눗’은 자음, ‘씨’는 단어/품사, ‘읍’은 詩를 뜻한다. “씨”는 주시경의 용어이다. 이책에는 “지사의 감회”라는 문장을 가로풀어쓰기한 예도 보이었다. 철자법과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느낀다. 위의 자료를 통하여 이미 1910년대 중반에 주시경의 철자법 및 가로풀어쓰기 이론과 언어정화론이 반도 밖의 교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 또 《대한인정보보》 10(1914. 5)에는 흘림체가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주시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⁵⁾

소련의 한국어 교과서 편찬은 1923년부터 편찬하여 1925년에 완료된 <무식을 없이하는 자란이의 독본>에서 본격화되었다. 이곳의 ‘자란이’란 ‘자란 사람’, 곧 ‘어른’의 뜻이다. 비록 철자법에 있어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면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는 전통적인 음소적 원리보다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지향하였다. 끊어 적기를 하여 동사의 기본형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면 전통적/조선총독부 철자법에 근거한 것도 많이 눈에 띈다.⁶⁾

- 4) 고송무는 《한글새소식》 89(‘80)에 기고한 《대한인정보보》에 실린 한글 풀어쓰기 흘림과 그 판독>에서 반도 밖의 가로풀어쓰기가 자생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런 기운은 이미 구한말의 《국문연구의정안》(1909)에서 얼굴을 내민 바 있고 그 후에도 각종 서식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안이 모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반도 안의 연구에서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관련 정보는 김영근(‘94: 214-5)를 보라.
- 5) 고송무는 위의 글에서 당시 반도 안에는 흘림체가 고안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국문연구의정안>(1909)에는 주시경이 고안한 흘림체가 나와 있다.

소련 교민들의 한국어 표준화운동은 1930년에 한 매듭을 지었다. 러시아/옛 소련의 교민들은 전통적으로 그들 자신을 “고려사람/고려인”이라 부르고 그들의 언어를 “고려어/고려말”이라 불러 왔다.⁷⁾ 고려인의 표준화운동의 결실인 吳昌燮 著 《高麗文典》의 “緒言”을 보면 고려인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 (2) 우리 邊疆 高麗人教育, 出版 및 文化等 모든 事業에 高麗文典의 統一되지 못한 그것이 많은 支障을 이르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特別히 表記法에 있어 學校와 學校, 敎員과 敎員, 著作者和 著作者, 乃至 學生과 學生 사이에서 表記法이 各異하고 한사람으로써 記錄된 書類일지라도 꼭 같은 意味를 가진 句節을 이장과저장에서 各異하게 表記하리니 實例까지도 많다.(원문대로)

사람에 따라 표기법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달리 적는 사례가 많아 철자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반도 안의 당시의 표기법도 소련의 교민사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1920년대 후반에 총독부 맞춤법에 대한 개정의 소리가 높았던 것도 통일되지 못한 철자법 때문이었다.⁸⁾ 소련 한인 사회에서 철자법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궁극적으로 표준을 삼을 수 있는 문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문전편찬과 정서법 제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1920년대 후반 반도 안에서 철자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 안확이 철자법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소련의 한인사회의 대표적 지역이었던 원동(遠東)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참고한 서적은 김두봉의 《조선말본》, 최광옥 내지 유길준의 《대한문전》, 김희상의 《초등국

- 6) 킹('92)에는 당시의 자료에 나타나는 표기법상의 특징을 28개 항목에 걸쳐 제시한 바 있다.
7) 알마타의 박 넬리 선생은 1997년 6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서 가진 연구발표회에서 “고려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코이네다. 즉 방언들이 혼합된 결과로 생긴 언어이다. 고려사람들은 이 언어를 고려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함경도의 두 개의 방언, 즉 명천-길주 방언과 육천방언이 혼용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려말”의 정확한 발음은 “고려말”이라고 하였다.
8) 관련된 논의는 고영년('97b)을 보라.

어어전》⁹⁾이었다. 특히 《조선말본》은 고고학적¹⁰⁾으로 되어 있어 현지 고려인에게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점이 많고 《대한문전》은 서양의 것을 지나치게 모방한 “外化的傾向”이 많기 때문에 고려인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려언문의 표기와 활용을 통일시킬 목적에서 통일문전을 집필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이리하여 요동변강인민교육부는 고려사범학교 고려어 교원 吳昌煥으로 하여금 《고려문전》을 저술하도록 하였다. 《고려문전》은 “遠東邊疆人民教育部 科學方法 소베트”의 인가를 받고 “遠東邊疆人民教育部(하바롭스크)”에서 1930년 발행되었다. 소련에서 나온 우리 민족어 서적은 표제지에 반드시 러시아어로 관련 서지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크기는 신국판, 모두 102면이다.

변강교육부는 오창환이 지은 《고려문전》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문전회의의 수정을 받아 완성하였다. 제1차 회의는 1929년 5월에 海港(우라디보스트크¹¹⁾)에서 열렸는데 桂奉瑛, 姜彩程, 李光, 朴宗根, 金時鐘 등이 참석하였고 제2차 회의는 1930년 1월에 하바롭스크에서 열렸는데 계봉우,¹²⁾ 강채정, 선봉 신문사 및 기타 출판관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책은 교사 참고용이기 때문에 직진법(直進法)을 사용하였으며 연습문제가 붙어 있지 않다. ‘직진법’이라 함은 이론 중심적 서술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연대상으로 볼 때 반도 안의 언문철자법이 1929년을 전후하여 심의를 거듭하다가 1930년에 공포된 것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문표준화운동이 반도 안팎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소련 변강교육부는 《고려문전》을 공식적으로 간행함으로써 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9) “서언”에는 지은이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고 책 이름만 나와 있다. 앞의 두 책의 지은이는 각각 김두봉과, 최광옥 내지 유길준임이 틀림없고 《국어어전》은 이러한 책이 달리 없기도 하거니와 《고려문전》의 문법체제로 볼 때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다.

10) ‘고고학적’이라 함은 용어가 지나치게 고유어 중심적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11) “海港”을 킹(‘91: 156)에는 “Nicol'sk-Ussurijsk”라 추정하고 물음표를 붙였으나, 《선봉》515(1930. 12. 17)에 실린 오창환의 글에 첫 회의가 “해삼위”에서 개최되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는 “海港”은 “海蔘威”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12) 한자음으로는 “계봉우”라고 적어야 하나 당시 “계봉우”로 적혀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

3. 《고려문전》의 표준화 내용¹³⁾

그러면 《고려문전》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고려어가 소련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건드리려고 한다. 본서는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문자, 제2편은 품사, 제3편은 문장을 다루었다.

제1편은 대체로 문자를 포함하여 발음법과 철자법을 구성하였다. 먼저 제1편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고려문전》 제1편의 내용

- 가. 제1장 國子
- ㄱ. 제1절 母音字
- ㄴ. 제2절 子音字
- ㄷ. 제3절 國子の發音上 調和
- 모음의 조화/자음의 조화/습관성 조화
- 나. 제2장 漢字

(가)에서는 고려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는 국자와 한자가 있는데 전자가 한글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한자에 대립되는 뜻으로 훈민정음을 “國字”라 불렀다. 당시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조선문자” 내지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국자”라고 쓴 것은 “고려문전”의 “고려”와 함께 정신적으로는 국권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교민 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이는 당시 연해주에 한인사회가 독립운동가들의 망명지였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제1절에서는 모음자를 다루었다. “母音”의 괄호 안에 “홀소리”라는 고유어를

13) 《고려문전》은 킹(91)에서 그 내용이 소개된 바 있으나 필자는 이에 매이지 않고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특수성을 평가하기로 한다. 특히 킹 교수는 《고려문전》이 김두봉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필자에게 이 책을 분석한 논문을 기증하고 내용상의 특징을 귀띔해 준 킹 교수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넣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을 통하여 우리는 “緒言”에서 언급된 바 있는 김두봉의 《조선말본》(‘16)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뒤에 나옴) 모음 10자를 두었는데 단모음은 6개, 나머지는 중모음과 복모음으로 처리하였다. 반모음이 앞서는 모음을 중모음, 뒤에 서는 모음을 복모음으로 처리하였다. 단모음체계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0)과 같고 나머지는 주시경, 김두봉과 일치하지 않는다. 주시경은 반모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겹소리/거듭소리”라 하였고 김두봉은 《조선말본》(‘16)에서 ‘ㄱ, ㅋ’을 단모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ㄱ, ㅋ, ㆁ’을 단모음으로 처리한 책도 있으나, 복모음으로 처리하였다는 언급(9쪽)이 있는 것을 보면 앞서 든 책 밖에도 뒤에 나온 다른 관련 업적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최현배가 동인지 《한글》에 발표한 모음론을 들 수 있다.¹⁴⁾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활용된 자료를 보면 초성 뒤의 모음 ‘에’를 모두 ‘에’로 적고 있다. ‘계봉우, 차례’를 ‘계봉우, 차례’로 적는 것이 그러하다.

제2절은 자음을 다루었다. 자음에는 전통적인 14자음을 들고 단복(單復)에 따라 단자음, 혼음, 쌍음, 첩음으로 하위분류하였다. 단자음체계는 주시경, 김두봉과 같으며 혼음은 평자음과 ‘ㅎ’이 결합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주시경의 체계와 일치한다. “雙音”은 동자병서한 이른바 “짜소리”를 가리키는데 주시경의 체계를 그대로 받았다. 첩음은 겹받침을 가리키는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의 11개를 두었다. 이러한 받침체계는 모두 주시경의 것과 일치한다. 초성과 종성에 통용되는 소리로 단자음 10개와 ‘ㄷ, ㅌ, ㅍ, ㅍ, ㅍ’의 넷을 들고 초성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ㄱ, ㄴ, ㅁ, ㅂ, ㅅ, ㅆ’을 들었다. 받침의 ‘ㅍ’은 김두봉의 《김두봉 조선말본》(‘22)(앞으로 <김더>라 줄여 부름)의 영향인 것 같다. 그러나 <김더>에 나와 있는 ‘ㄱ’ 받침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으로 설정되었음이 틀림없다.¹⁵⁾ 자음의 독법은 ‘ㄱ, ㄴ, ㄷ’로 읽고 있는데 이는 김두봉의 《김두봉조선말본》에 인용되어 있는 주시경의 안과 같다.¹⁶⁾ 맞춤법통일안의

14) 관련된 논의는 고영근(‘95a: 89)를 보라.

15) 오창환은 주시경의 활판본은 물론 초기 유인 저술도 거의 본 것 같다. 그것은 “類書”라고 표현된 부분에 나오는 용어가 대부분 주시경 용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역대 문법가의 용어에 대하여는 《역대한국문법대계 총색인》(‘86, 탑출판사)(별책)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ㄷ-불규칙용언의 기본형을 ‘들(聞)’처럼 ‘ㄹ’ 받침을 가진 것으로 잡아 자음 위에서 ‘ㅅ’으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다.(13면) 이는 주시경 때부터 ‘ㅅ’과 ‘ㄷ’의 수의적 교체형으로 보아 온 것을 ‘ㄹ’ 받침을 기본형으로 삼고 그것이 자음 위에서는 ‘ㅅ’으로 바뀐다고 본 것이다. 이 현상은 반도 안에서는 이운재에 의하여 ‘ㄷ’ 불규칙활용으로 처리되었고 이는 다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반영되었다.¹⁷⁾

제3절에서는 모음의 조화, 자음의 조화, 습관성 조화를 들었다. “모음의 조화”에는 “모음의 장단”과 “母音의 連縮”을 다루었다. 모음의 장단에서는 장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왼쪽에 점을 치는 책이 있으나 장음을 가진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점을 치자는 견해를 보인 책은 필자가 알기로는 이규방의 《조선어법》(‘22)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모음의 연속”에서는 ‘나가았다, 서어서; ㅸ어, 흘르어’의 경우, 발음과 표기를 모두 줄어진 대로 하라고 하였다. 주시경과 김두봉과는 반대되고 오히려 후대의 맞춤법통일안과 비슷하다. 선구적인 변모가 보인다고 하겠다. “자음의 조화”에서는 “자음의 連變”과 “자음의 나는 힘”을 두었다. 전자에서는 자음동화에 의해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 변한 대로 적지 말라고 규정하였다. 후자는 같은 자음이라도 발음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앞서 든 겹받침의 예를 들었다.

“습관성 조화”라 함은 앞의 두 종류와는 달리 습관성으로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고 말하고 독법과 표기법을 달리 규정하였다. 이를테면 ‘안녕, 라주, 려행, 니마, 니’는 그대로 적되, 발음은 ‘알령, 나주, 여행, 이마, 이’로 하라는 것이다. 표기법과 독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예에 대하여 표기와 독법을 달리 규정한 것은 매우 깊이 생각한 끝에 얻은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¹⁸⁾ 앞으로 남북의 어문통일과정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고체계였다고 생각한다. ‘ㄷ, ㅸ’도 모두 없애고 ‘자, 차’로 적기로 하였다. 이 역시 맞춤법 통일안과 같다. 현실발음을 존중한 표기를 지향하였다. 그리고 ‘ㄱ, ㅎ’ 구

16) 주시경의 자음차 이름에 대한 견해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95: 96주)을 보라.

17) 관련된 논의는 고영근(‘88)을 보라.

18) 필자는 남북 맞춤법을 비교하여 통일 맞춤법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어두의 ‘ㄹ, ㄴ’을 맞춤법에 반영하되 발음은 탈락된 대로 하자는 타협안을 제안한 일이 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90=‘94: 131)을 보라.

개음화된 단어는 모두 비구개음화된 형태로 적으라고 하였다. 두음법칙에 관련된 표기를 제외한 모든 표기는 맞춤법 통일안과 일치한다. 두 차례에 걸친 수정 위원회에서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던 반도 안의 표준화운동에서 어떤 암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인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 책에 반도 안의 대부분의 문법서가 참고되었다는 흔적이 많기 때문이다.(뒤에 나옴)

(나)에서는 한자를 다루었다. 고려문전에서 한자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되고 골계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느니만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의 반도 안도 사정은 같은데 총독부 철자법이나 통일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먼저 한자의 육서(六書)와 부수를 소개하고 훈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훈이 우리의 본어(本語)이며 특히 형용사와 동사의 글자는 ‘ㄹ, 을, ㄴ’을 제외한 것을 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자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진술하였다.

(4) 한자에 대한 고려문전의 태도

一般國漢字 混交의 記錄에서 <言文一致>를 위하여 한자로 된 熟語 또는 術語外에 그 “訓”과 “音”이 一致되지 않는 漢字는 一切로 그 使用을 忌避하고 嚴禁할것이다.(25면)

한자숙어나 술어만 한자로 쓰고 ‘사람이 가오’에 나타나는 ‘사람’ 대신에 ‘人’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언문일치가 파괴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문일치에 어긋나는 한자를 만나면 음독하지 말고 훈독할 것도 당부하였다. 동시에 고려문전은 고유어 ‘생각, 동안, 생기다’를 한자로 쓰지 말도록 규정하였다. 반도 안에서는 장지영의 《조선어철자법강좌》(‘30)에서 처음 볼 수 있다.¹⁹⁾ 당시 반도 안은 한자폐지론과 한글전용론이 맞서 있다가 당분간은 한자제한론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소련의 한인사회는 국한문혼용에 대비하여 한자 사용에 대한 규범을 그 나름대로 세웠다. 총독부 철자법이나 맞춤법 통일안도 이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였다. 당시 옥편 종류가 많이 나와

19) 관련 논의는 고영근(‘97a)을 보라.

있어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제2편은 품사편이다. 먼저 제2편의 내용을 적어 보기로 한다.

(5) 고려문전의 “品詞” 편의 내용

總論

- 가. 제1장 名詞(임씨)
原名詞/代名詞/名詞의 變化
- 나. 제2장 形容詞(연씨)
本來形容詞/轉來形容詞/形容詞의 變化
- 다. 제3장 動詞(음씨)
本來動詞/轉來動詞/動詞의 變化
- 라. 제4장 助詞(것씨)
主語助詞/從屬語助詞/補助語助詞/修飾語助詞
- 마. 제5장 終止詞(맺씨)
詠嘆終止詞/對語終止詞/疑問終止詞/命令終止詞
- 바. 제6장 接續詞(잇씨)
本來接續詞/轉來接續詞
- 사. 제7장 副詞(억씨)
本來副詞/轉來副詞/副詞의 用法
- 아. 제8장 感歎詞(늑씨)
感歎詞의 種類/感歎詞의 用法

총론에서는 품사체계와 정서법에서 부딪히는 조건을 베풀었다. 품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6) 《고려문전》의 단어와 품사 정의

모든 音字가 모이어 語字가 되고, 그 語字들이 單獨或은 結合하여 어떠한 意義를 所有하게 된 單語(個語)들을 詞(씨)라 한다. 그리고 詞는 그 性質과 品類로 보아 여러 가지로 區分하게 되므로 이를 品詞라 總稱하며, 文典에서 의 이 部分을 品詞論或 語典이라 한다.(27면)(원문대로)

“음자”란 개별적인 소리를, “어자”는 음절을 뜻하는 것 같다. “음자”란 말은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에 보이므로 영향관계를 추상할 수 있다. “어자”는 이전에 달리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어”와 “詞(씨)”를 같이 보는 것은 주시경 및 김두봉과 연결된다. 괄호 안에 “씨”를 넣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詞”는 김희상의 《조선어전》(‘11)에 이미 나타났다. 詞를 성질과 품류에 따라 구분한 것을 “품사”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다카하시(高橋亨) 등 당시의 일본의 한국문법가들 사이에 사용되었다. 개화기의 “語典”은 문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려문전》에서는 품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오창환은 고려어의 품사로 다음의 8개를 두었다.

(7) <고려문전>의 품사체계

名詞, 形容詞, 動詞<原詞>, 助詞, 終止詞, 接續詞<吐詞>, 副詞, 感歎詞
<混成詞>

관형사가 빠진 것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시경과 김두봉의 품사체계와 비슷하다. “原詞, 吐詞, 混成詞”는 김두봉의 “으뜸씨(元詞), 토씨, 모임씨”를 한자어로 옮겨 놓은 것이다. 오창환은 자신의 품사체계를 세우면서 고려어는 품사체계가 통일되지 못하여 8품사로부터 10품사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는데 8품사는 유길준의 《대한문전》(‘09)를, 9품사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것을, 10품사는 안학의 《조선문법》(‘17)을 가리킨다. 이로 미루면 오창환은 초기에 나온 문법서는 거의 섭렵(涉獵)하였음을 알 수 있다.(뒤에 나옴)

오창환은 품사 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서법에 관한 몇 개의 조건을 베풀었다. 정서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근과 조어(곧 토사)를 판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먼저 어근 판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보이었다.

(8) 어근 판별에 대한 조건

- ㄱ. 한 자로 된 말은 발음의 장단을 살펴야 하며 여러 자로 된 말은 그 2음절 이하의 초성을 함부로 종성에 갖다 붙이지 말 것
- ㄴ. 각 원사가 본래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래(轉來)된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할 것
- ㄷ. 종성을 가진 원사들의 종성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아’ 자행의 토사에 표준

할 것

- ㄹ. 형용사와 동사의 어근을 한자에 기대어 판별할 때에는 훈과 음의 중간에 있는 '(으)ㄴ, (으)ㄹ'을 제외할 것.
- ㄴ. 형용사, 동사 중에서 'ㄹ'을 가진 단어들이 이어지는 토사들의 발음을 변경시킨다는 점에 주의할 것.
- ㄷ. 두 개의 명사가 합하여 한 개의 명사를 만들 때에 중간에 'ㅅ'을 더하지 말 것
- ㅅ. 국자(國字)의 모든 조화상의 성질과 법칙을 항상 고찰하고 이용할 것

(ㄹ, ㄴ)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ㄱ)과 (ㄴ)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ㄱ)의 첫째 조건은, 'ㅁ'을 'ㅁ음'으로 적는 것은 발음의 장단을 살피지 않는 데서 생기는 착오요, 둘째 조건은, '살피'를 '살이'로 적는 것은 둘째 음절의 초성을 합부로 종성에 붙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이라고 하였다. '노래, 노피'와 같이 다른 말에서 전성된 말은 어근과 조어(助語)를 구별하여 '놀애, 높이'와 같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조어"란 접미사를 뜻한다. 이러한 표기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 나름의 근거를 대고 있다는 점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토사 이용에 대한 조건은 조사, 어미 등의 문법형태소에 대한 정체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오창환은 '이, 아, 앓, 엇, 은, 을' 등의 아 행으로 된 토사를 원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5가)는 명사에 원명사와 대명사를 두었다. 원명사는 다시 다음의 두 관점에서 세분하였다.

(5가) 원명사의 분류

ㄱ. 성질상 구분

固有名詞/特立名詞/普通名詞

ㄴ. 조직상 구분

本來名詞/轉來名詞

(ㄱ)의 특징은 "특립명사"인데 "선봉, 불꽃"과 같이 보통명사가 고유명사화한 것을 가리킨다. 유길준의 《대한문전》에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은 바 아니나

고유명사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음미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하위분류이다. 독립 명사를 적을 때에 큰따옴표(“ ”)나 낫표(「 」)로 표시한다는 것도 선구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원명사를 유형, 무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마는 이책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오창환이 이전의 우리의 문법적 저술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ㄴ)의 “본래명사”란 ‘사람’처럼 고유어를 가리킨다. 전래명사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가리키거나 다른 품사에서 전성된 명사를 가리키는데 이를 외래명사, 형명사, 동명사, 부명사라 불렀다. 형명사는 접미사 ‘이, 억지, 영이, 기’가 붙어 이루어진 ‘높이, 길억지, 펴영이, 크기’와 같은 말이다. ‘기’가 붙은 명사에는 명사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동명사는 ‘신--신(다)’처럼 동사에서 직접 명사가 된 말이나, ‘웃음, 지개’처럼 접사를 붙여서 이루어진 말을 가리킨다. 부명사는 ‘기력이’처럼 부사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이곳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사의 끝에 공통된 접사를 붙여 형태를 가지런히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테면 ‘성에, 승에, 술에’에는 ‘에’를 공통적으로 붙이고 ‘무우, 아우, 계우’에는 ‘우’를 붙인다는 것이다. 당시 반도 안의 권덕규가 이런 이런 생각을 가졌음을 보았는데,²⁰⁾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대명사에는 인대명사, 수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를 두었는데 김두봉의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명사의 변화도 김두봉의 《조선말본》의 “임의 바꿈”의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원명사와 대명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명사의 의미변화”는 김두봉의 “뜻바꿈”에, “명사의 형질변화”는 “몸바꿈”과 내용이 같다. “명사의 결합”이라 하여 합성어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명사 사이에 결코 사이시옷을 넣지 말라고 규정하였다. 이를테면 ‘기발’은, (8ㄷ)에서 본 바와 같이, 발음은 ‘깃발, 기빨’로 하되 적기는 ‘기발’로 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규범집》(‘66)의 규정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대명사의 변화에서는 복수 대명사 ‘우리, 너희’, 수관형사 등을 다루었고, 낱자 이름과 가축의 연령을 표시하는 어휘를 다루었다. 어원적 공통성에 근거한 것도 있고 하여 체계가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20) 관련된 논의는 고영근(‘97)을 보라.

수 없다.

(5나)의 형용사도 김두봉의 체계를 따랐다. 오창환은 형용사를 동사와 함께 “用言”이라 부르고 괄호 안에 “쓰씨”를 넣었으며 이는 “體言(몸씨)”에 대립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이 역시 김두봉의 체계임은 물론이다. 특징은 ‘어찌하’의 물음에 응대되는 단어를 형용사로 규정한 점이다. 이런 식으로 품사를 알아내는 틀이 마련된 것은 해방후의 정인승의 《표준중등말본》(’49)에서 비롯된다. 형용사는 본래형용사와 전래형용사로 하위분류되어 있다. 본래형용사에는 성질, 형상, 시간, 수량, 지시, 의문 형용사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김두봉의 체계를 그대로 따랐다. 전래형용사는 명사, 동사, 부사로부터 변형된 형용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名形容詞, 動形容詞, 副形容詞, 前置形容詞, 不完全形容詞”의 5개를 두었다. 명형용사는 명사로부터, 동형용사는 동사로부터, 부형용사는 부사로부터 각각 형성된 형용사를 뜻한다.

전치형용사는 김두봉의 “언씨(冠詞)”를 뜻하는데 오창환은 관사를 폐지하고 전치형용사라 하여 형용사에 편입하였다. 다른 문법서에는 관사를 따로 세우나 관사의 원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였다. 국어문법연구에서 관사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은 김두봉인데 오창환은 이를 취하지 않았다. 옹고그름과는 관계없이 오창환은 김두봉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창환은 형태적 특성보다는 의미상의 공통성에 치중하여 관사(관형사)를 형용사에 넣었는데 이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불완전형용사는 조사 ‘과/와’나 어미 ‘(으)르, 고’ 등을 매개로 하는 ‘비슷하다, 뜻하다, 싶다’를 가리킨다. 이는 김두봉의 “절언”을 확대·응용한 것이다. 일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형용사의 의미변화에서는 인도·유럽어의 비교급을 수용하여 ‘불다’를 원급, ‘벗었다’를 평급, ‘밝았다’를 상급, ‘셋밝았다’를 최상급으로 보고 있는데 김두봉의 뜻바꿈체계를 더 개악(改惡)시켰다고 할 수 있다. 김두봉의 뜻바꿈은 현대적 관점에 서면 대부분 어휘의미론의 소관이다.

(5다)는 “動詞(움씨)”를 다룬 것이다. 앞의 형용사와 같이 ‘어찌하’의 물음에 응대되는 단어를 동사로 규정하였다. 동사에는 먼저 본래동사와 전래동사를 두었으며 본래동사는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를 두었다. 전자에는 “能自動詞, 被自動詞, 互自動詞”로 하위분류하였다. 능자동사는 김두봉의 “홀로제움(無對自動)”

에 해당한다. 피자동사는 김두봉의 “더불제움(有對自動)”과 비교해 볼 때, 예는 공통되는 것이 있으나 설명에 있어서는 상반된다. 오히려 김두봉의 견해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호자동사는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 움직이게 하는 동사를 가리키는데 ‘싸호다, 사괴다, 흘기다’ 등을 들었다. 통사구성상의 특징을 감안한 분류로서 현대적 관점에 설 때 음미의 가치가 크다. 타동사에는 “直接他動詞(單對他動), 間接他動詞(複對他動)”로 하위분류하였다. 직접타동사와 간접타동사는 괄호 안의 용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김두봉과 완전히 일치한다.

전래동사에는 “名動詞, 形動詞, 副動詞”를 두었다. 명동사는 명사에서 전성된 동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사가 동사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명사가 동사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사랑, 생각, 鎮靜’ 등은 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나, ‘國家, 人間’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접사 ‘하다’의 제약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였다고 생각한다. 형동사는 ‘크다, 길우다’와 같이 형용사에서 동사로 전성된 동사를 가리킨다. 부동사는 부사가 “助語”, 곧 접미사에 기대어 동사로 전성하는 것이다. ‘흔들흔들하다’가 그러한 예이다. 끝으로 불완전동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김두봉의 “절움 不完全動”을 바탕으로 하였다. 김두봉은 ‘되다’만을 두었으나 ‘되다’ 밖에 ‘하다’를 더 두었다. 앞에서는 ‘하다’를 조어, 곧 접미사로 다루어 놓고 이곳에서 다시 불완전동사로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동사의 변화에서는 자동이 자동으로, 타동이 타동으로, 자동이 타동으로 바뀌는 예를 들었는데 어휘적 의미의 변화와, 접사에 기댄 동사 전성이 섞여 있어 전체 체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동사의 대우법적 변화와 시간을 다루었다. 전자는 주로 보충법에 기댄 동사의 높임법 동사를 다루었고 후자는 동사의 시제를 다루었다. 동사의 시제를 다른 책에서는 조동사에서 다루고 있지 마는 이 책에서는 동사에서 다룬다고 하였다. 이곳의 다른 책은 유길준의 《대한문전》(‘09)를 가리킨다. 오창환은 동사의 시간을 크게 “原時詞, 副時詞, 混時詞”로 나누고 전자에는 현재의 ‘ㄴ/는’, 과거의 ‘았/엇’, 미래의 ‘겠’을 두었으며 관형사형의 시제도 같은 범주에 넣었다. 부시사에는 ‘더’와 ‘앗겠, 앓섯’과 같이 과거시제를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재미 있는 관찰로 보인다. 혼시사는 원시사나 부시사에 관형사형이 결합된 시제형을 뜻한다. 국어의

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5라)는 “것씨”를 다룬 것이다. 것씨란 “原詞”의 위격을 形成하여 주는 때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모든 원사가 조사를 만나야 비로소 조직 있게 쓰임을 뜻한다. 조사에는 다음 4개를 두었다.

(5라')조사의 갈래

주어조사/ 종속어조사/보조어조사/수식어조사

주어조사는 “直主格, 呼主格, 任意主格”을 두었다. 직주격은 김두봉의 “임자젓(主語吐)”에, 호주격은 “부름임자격”에 해당한다. 임의주격은 주어로 쓰이는 보조사를 가리키는데 김두봉은 이를 “돕음젓(補助吐)”으로 다루었다. 종속어조사는 김두봉의 “딸립젓(從屬吐)”과 같은데 관형격조사 ‘의’와 관형사형어미를 포괄한 범주이다. 조사는 다른 조사의 아래에도 쓰이는데 이때에는 끝에 쓰이는 조사가 그 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말에서의’와 같은 예가 그것인데 조사의 분포와 기능을 면밀하게 관찰한 소치로 보고 싶다. 이곳에서 오창환은 다른 책에서 사용하는 “領助格, 形容格, 領格”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영격”은 이필수의 《선문통해》(‘22)에 보인다. 보조어조사란 다른 문법서의 “관계격”의 일부분을 개칭하였다고 하지만 “表解 十四”가 결락(缺落)되어 정체를 잘 알 수 없다. 대체로 김두봉의 “매임젓(關係吐)”과 겹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수식어조사는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쓰이어 그 말을 수식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 보조어조사와 함께 조사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였다. 表解十五로 미루어 볼 때, 김두봉의 매임젓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 아래 쓰이는, 부사성이 강한 연결어미를 확대하여 설정한 범주로 보인다.

(5마)는 종지사(맺씨)를 다룬 것이다. “詠嘆, 對語, 疑問, 命令 終止詞”의 넷을 두었다. 영탄종지사는 김두봉의 “홀로맺”과, 대어종지사는 “이름맺”에, 의문종지사는 “물음맺”에, 명령종지사는 “시김맺”에 각각 해당한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김두봉은 준비의 등분을 해라, 하계, 합쇼/하소서 3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하여 오창환은 평교와 존대의 두 등급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준비법에는 하계체가 빠져 있어 체계 전반을 잘 마무리했다고 하기가 어렵다.

(5바)는 “接續詞(잇씨)”를 다룬 것이다. 본래접속사와 전래접속사를 두고 있다. 본래접속사에는 접속조사 ‘과/와, 하고, 및’과 대등적 연결어미를 두었다. 김두봉의 “다만잇”과 “두로잇”을 종합한 것이다. 전래접속사는 원사와 조사가 혼합하여 일종의 어구처럼 된 접속사를 일컫는데 현행학교문법의 접속부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 연체접속사와 반복체접속사를 두었다. 전자는 순접접속부사이고 후자는 역접접속부사이다.

(5사)는 “副詞(역씨)”를 다룬 것이다. 크게 본래부사와 전래부사를 두었다. 전자에는 지시, 시간, 비교, 인정, 부정, 상태 부사를 두었다. 특히 상태부사에는 寫聲, 寫形 副詞를 두었는데 전자는 의성어, 후자는 의태어를 뜻한다. 대체로 김두봉의 체계를 근간으로 삼되 부분적으로 손질하였다. 김두봉의 색태부사 대신에 사형부사를 넣은 것이 그러하다. 전래부사에는 “名副詞, 形副詞, 動副詞”를 두었다. 명부사는 명사가 부사로(‘방금’), 형부사는 형용사가 부사로(‘빨리’), 동부사는 동사가 부사로(덜, 넘우) 각각 전성하는 것이다. 김두봉의 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부사의 용법은 현행 학교문법의 용법과 큰 차이가 없다.

(5아)는 感歎詞(느씨)를 다룬 것이다. “환희, 경악, 멸시, 응답, 긍정, 촉성(促醒), 무의, 유인”을 두었는데 김두봉을 발판으로 삼아 몇 가지를 더하였다. 감탄사의 용법을 문장의 처음에 쓰이는 것과 끝에 쓰이는 것으로 나눈 것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제3편은 문장을 다루었다. 이곳에서도 “文章(文 或 월)”이라 하여 주시경, 김두봉의 용어인 “월”을 괄호 안에 넣었다. 품사편과는 달리 문장편에서는 완결된 문장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모두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과 관련되어 있다. 전체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고려문전》의 문장편의 목차

가. 第一章 文章과 그 成分

文章의 成分/文章의 成分 排列法

나. 第二章 文節

다. 第三章 文章의 種類

라. 第四章 文章符號

(9가)는 “문장”을 정의하고 진정한 의미의 문전은 문자부분에 관한 것이나 문자와 품사까지 총괄하여 문전이라 함은 그것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문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두봉의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진보적인 문법관을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 종속어, 보조어, 수식어, 설명어의 다섯을 두었다. 김두봉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것은 김두봉의 “매임껏”을 “보조어조사, 수식어조사”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성분의 수도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주어에서는 “單主語, 衆主語, 總主語, 小主語, 節主語, 宗主語”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는 유길준의 《대한문전》(’09)과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김두봉의 체계를 연결된다. 단주어는 김두봉의 “훗임자”와, 중주어는 “못임자”와, 총주어는 “큰임자”와, 소주어는 “작은임자”와, 절주어는 “마디임자”와, 종주어는 “으뜸임자”와 일치한다. 김두봉에 나오는 “붙음임자”와 “같은마디”에 해당되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김두봉의 주어 분류가 지나치게 추상적임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다. 설명어에서도 주어의 하위분류에 보조를 같이하여 “單說明語, 衆說明語, 節說明語, 小說明語, 總說明語, 宗主說明語”를 두고 있는데 주어와 함께 김두봉의 성분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단설명어는 “훗풀이”와, 중설명어는 “못풀이”와, 절설명어는 “마디풀이”와, 소설명어는 “작은풀이”와, 총설명어는 “큰풀이”와, 종주설명어는 “으뜸풀이”와 각각 일치한다. 이곳에서도 김두봉이 설정한 “붙음풀이”와 “같은풀이”는 보이지 않는다. 주어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빼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속어는 종속격조사가 붙은 현대의 관형어에 일치하는 성분이다. 이곳에도 “單, 衆, 總, 連”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다. “連”은 종속어가 연속된다는 뜻으로 쓴 것 같다. 보조어는 보조격조사가 붙은 성분이다. 이곳에서는 “單, 衆”에 따른 구분을 두었다. 수식어는 수식격조사가 붙은 것인데 여기에도 單, 衆의 구별을 두었다. 오창환은 주어와 설명어를 “주성분”, 나머지를 “부속성분”으로 처리하였다. 반도 안에서 이런 개념의 용어가 쓰인 것이 훨씬 뒤라는 점과 관련시킬 때 선구적인 측면이 보이기도 한다.

“문장의 성분 배열법”에서는 정치법, 변치법, 문장의 성분생략은 유길준이나 김두봉과 큰 차이가 없다.

(9나)의 “文節”에는 독립절, 부분절, 부속절/원절을 두고 있는데 이는 김두봉의 “홀로마디, 조각마디, 붙음마디, 으뜸마디”와 일치한다.

(9다)는 문장의 구조적 분류이다. “單文, 重文, 複文, 疊文, 混文”의 다섯 가지를 두었다. 김두봉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단문은 “훗월”, 중문은 “줄월”, 복문은 “겹월”, 첩문은 “덧월”, 혼문은 “모월”에 각각 일치한다.

(9라)는 문장부호를 다룬 것이다. 우리말의 문장부호는 일찍이 상해와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영창과 양명에 의하여 필요성이 인식되어 시안이 발표된 바 있고, 이상춘의 《조선어문법》(‘25)에서 응용화가 모색되었으며, 그 이후는 《한글미춤법통일안》에서 정식으로 철자법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²¹⁾ 그런데 《고려문전》에서 문장부호가 취급되어 오히려 반도 안보다 먼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오창환은 문장부호 사용의 의의와 그 통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모든 文章의 意味를 直視的으로 一層 明瞭하게 하기爲하여, 文章의 表記上에 種種의 符號를 사용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一般文章의 表記에 있어서는, 그符號의 사용이 統一的으로 規定된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붙어는 그 사용을 一般的으로 實行하며 또는 그 用法에서 正當한 慣習을 얻도록 用力할것이다.(97면, 원문대로)

(10)을 통하여 우리는 문장부호 사용의 의의가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누구보다도 그 의의를 적실하게 표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장부호에는 10개를 두었다. “終止點, 句節點, 重句點, 半重點, 引用號, 連結線, 括線, 括弧, 括感歎票, 問票”가 그것이다. 앞의 김영창과 양명보다는 수효가 적지마는 문장부호의 이름을 주고 용법을 자세히 밝혔다는 점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우리글의 문장부호의 용법이 언어학적인 토대 위에서 올바르게 정립된 것은 최현배의 《우리말본》(‘37)에 와서야 가능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²²⁾

21) 관련논의는 고영근(‘97a)를 보라.

4. 고려어 규범의 보급과 이에 따르는 문제

조선총독부의 철자법과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보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처럼,²³⁾ 고려어의 규범 역시 그 보급이 순탄하지 않았다. 《고려문전》이 간행되자 계봉우는 1930년 11월 12일부터 1930년 12월 7일 사이에 9회에 걸쳐 오창환의 저서를 비판하는 <고려문전과 나의 연구>라는 글을 《선봉》에 기고하였으며 오창환은 계봉우의 비판에 대하여 같은 지상에 <고려문전과 나의 연구를 넓고서>를 1930년 12월 17일부터 1931년 3월 17일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기고하였다. 전후 20차례에 가까운 열띤 논전이 해를 넘겨 가며 계속되어 소련의 한인사회의 우리 어문의 표준화가 반도 안의 것에 못지 않은 아픔을 겪어 가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먼저 계봉우는 고려어 문전회의가 있고 난 뒤 현장에서 가르친 경험과 연구한 바에 기대어 《고려문전》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다음 8개 주제에 걸쳐 오창환의 견해를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괄호 안의 숫자는 《선봉》의 호수를 가리킴)

(11) 계봉우의 오창환에 대한 비판 내용

가. “자음”이라는 용어 대신 “초성, 종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501호)

나. 비-불규칙활용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옳지 못하며 불규칙동사를 인

22) 관련된 논의는 고영근('95a: 431-3)을 보라.

23) 관련논의는 고영근('97b)을 보라.

24) 관련 정보는 킹('92), 고송무('93)에서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필자는 《선봉》 영인본(고려서점, 1994)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오창환의 답변은 1(515, '30. 12. 17), 5(527, '31. 1. 19), 8(535, '31. 2. 1), 9(545, '31. 3. 5), 10(546, '31. 3. 17)의 5회만 볼 수 있고 나머지 기고분은 결락되어 있다. 또 제 545호는 8회로 되어 있으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9회로 바꾸었으며 최종 연재분인 9회도 10회로 고쳤다. 그런데 앞의 킹과 고송무의 기고에는 오창환의 답변이 2회 연재가 전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1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어쨌든 1회와 마지막 회의 기고분을 볼 수 있어 논쟁의 전말을 파악하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인다.

정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502호)

- 다. 옛 이음을 살려 '소아지'와 같이 적는 것이 옳다.(502호)
- 라. ㄷ-불규칙활용을 'ㄹ'에서 'ㅅ'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며 사이시옷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503호)
- 마. 쌍리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홀너'와 같이 'ㄹㄴ'으로 적어야 한다.(504호)
- 바. 장모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처음, 마음'을 '침, 맘'으로 축약하자는 것은 어원을 알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506, 507호)
- 사. 자음동화 규칙이 잘못되었다.(508호)
- 아. 접미명사와 전치형용사는 잘못이기 때문에 접두어와 접미어로 바꾸어야 한다.(509호)
- 자. '사람, 주검'은 '사름, 주검'으로 적어야 하며 마르(N. Marr)의 "Stadial Theory"에 기댄 어원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다리(각)'를 '달다'의 불규칙어간 '달'과 관련시키는 것이 그러하다.(511, 512호)

<한글마춤법통일안>의 관점에 서면 계봉우의 비판은 경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지 않다. 특히 (나, 라, 바, 아)는 맞춤법통일안에 그대로 수용된 것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말의 어원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은 옳고그름과는 관계 없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들은 해방후 북한에서 시도되었다. 계봉우는 뒤에 《조선문법》('47), 《조선말의 되어진 법》('55), 《이두집해》('43), 《북방민족의 말》('55) 등 우리 어문 전반에 걸친 업적을 많이 남겼고 그밖에 문학, 역사, 농업, 설화 등에 관련된 저술을 남겼는데,²⁵⁾ 우리 어문에 대한 조예가 상당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계봉우의 글을 통하여 오창환은 김두봉의 두 번째 저술인 《김두봉조선말본》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창환은 계봉우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변론이라고 지적하고 논쟁의 경위를 밝히었다. 사실 1929년 해삼위에서 열렸던 제1차 회의에서는 오창환의 원고와 계봉우의 원고가 함께 상정되었는데 계봉우의 원고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여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오창환의 원고가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자기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오창

25) 관련 정보는 고송무('93)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북우 계봉우 자료집》1(1997)의 해제 <북우 계봉우의 생애와 저술활동>(조동걸 집필)에서 볼 수 있다.

환의 이론에 반기를 든 사람은 계봉우와 강채정이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고려어 교과서》를 편찬하게 된다.(뒤에 나옴) 오창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계봉우의 비판은 비판의 윤리를 어겼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오창환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고려어 철자법의 심의중에 일어난 비판과 토론이 아니라 《고려문전》이 공간된 다음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판정해도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오창환은 계봉우에 대한 비판에서 계봉우의 연구는 관념적 피상적이며 단어의 성질과 구성법칙을 모른다고 말하고 최종호에서 조선문전의 과업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12) 조선문전의 낭면과업

- 가. 표기법의 정리
- 나. 언어의 조직법 정리
- 다. 통일적 표준어 보급
- 라. 균중적 실용화

(가)는 철자법을 정리하고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는 문장을 올바르게 평이하게 조직하도록 하여 한다는 것이다. (다)는 '남기, 남그, 굼기'와 같은 말을 버리고 '나무, 구무'와 같은 표준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민중에게 더욱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1930년에 제정·공간된 《고려문전》의 철자법과 문법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 보급되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는 당시 원동에서 발간된 잡지나 신문을 먼저 검토해야 하겠으나 현재 그 자료를 볼 수 없어 이곳에서는 필자가 최근에 입수한 오창환의 중등학교 《조선어 문법교과식》(문장론)과, 강채정·계봉우의 《고려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오창환의 《조선어문법교과서》²⁷⁾는 원동 변강 인민교육부장의 인준을 받아

26) 관련 논의는 고송무(93)에서 볼 수 있다. 고송무의 보고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다.

1934년 10월에 초판이 나오고 이듬해 1935년 1월에 제2판이 나왔다. 출판사는 “련합국립출판부-원동국립출판부”이다. 크기는 신국판, 모두 145쪽이다. 교원참고용이었던 앞의 《고려문전》의 체계와 용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6-7학년용으로 엮은 것이다. 중요 목차만 적어 보인다.

(13) 오창환의 《중등학교 조선어문법교과서》

머릿말

가. I. 품사론에 대한 연습과 보충

나. II. 간단한 구어

다. III. 복잡한 구어

마. IV. 장문

부록--언어학과 조선어학사의 개요/연습재료

모두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다. 국한문 혼용이었던 《고려문전》과는 대조적이다. 당시의 반도 안의 총독부 교과서가 국한문혼용이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당시 소련의 한인사회의 모국어에 태도가 어떠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철자법 규정을 특별히 배풀지는 않고 주로 품사와 문장 및 문장 결합체를 중심으로 실천 위주의 문법을 다루었다. 그러나 지문이나 예문은 모두 고려어 철자법으로 통일시켰다. “머릿말”에는 책의 성격 및 체재를 배풀었다. 앞의 《고려문전》에서는 합성어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곳에서는 ‘머릿말’에서 보듯이 사이시옷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계봉우의 비판이 있었음을 앞에서 보았는데, 그 사이 부분적 개정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가)에서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기본품사의 식별과 관용적 표현을 다루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고려문전》의 “吐詞”를 “관능어”라 달리 부르면서 그 용법을 자세히 배풀었다. (나)에서는 홀문장의 구성, 성분의 배열, 도해를 다루었는데 성분의 배열을 다루는 마당에서는 쉼표의 용법과 관련시킨 것이 주목된다. (다)에서는 겹문장의 구성과 도해를 다루었다. (라)에서는 문장의 결합체인 “장문”의 구성을 다루었다. 이는 현대언어학의 텍스트문법의 전개라

27) 이 책은 서울대학교 김광해 교수가 필자의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대여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문체와 문장부호에 대한 지식도 도입하였다. 우리 민족의 중등학교 문법교과서에서 텍스트 단위를 설정한 것은 이책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쪽에서는 60년대 후반의 점인정 문법 교과서에 이 문제가 다루어진 일이 있고 80년 중반에 나온 《고등학교 문법》에 “이야기”란 이름 아래 텍스트문법이 얼굴을 내밀었다.²⁸⁾

부록에서는 일반언어학과 우리 어학사를 개관하였다. 일반언어학은 언어발생과 민족어의 성립 등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를 둔 언어학의 지식을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언어가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명제를 바닥에 깔고 있다. 이러한 명제에 입각하여 조선어 발전의 역사와 문자의 문제를 비롯하여 방언, 문어, 속어, 이어, 외래어를 다루었으며 조선어문법연구의 역사를 자세히 다루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어의 형성과 발전을 다룬 것은 해방 후 북한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²⁹⁾ 소련의 한인사회는 벌써 30년대에 이런 해석을 내려 교과서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최광옥(=유길준)으로부터 주시경, 김두봉, 이윤재, 이상춘을 거쳐, 1932년의 동아일보의 연재물 “신철자법”(앞에서 나옴)까지의 문법연구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주시경이 초기에 문법연구를 많이 하였고 제자를 많이 길러 내었다고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에서 필자는 《고려문전》을 집필할 때 반도 안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법서와 관련 정보를 보았으리라고 추정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사실 계봉우의 기고를 보면 오창환이 김두봉의 저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언급을 더러 볼 수 있는데 김두봉의 문법은 반도 안뿐만 아니라 반도 밖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어문법 가운데서도 문장론 방면의 연구가 매우 미진하다는 소견도 붙이었다. “련습재료”에서는 (11)의 이론적 문제를 구체적 문장을 풀어 보는 문제를 내어 이론의 실용화를 꾀하였다.

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는 강채정·계봉우의 《고려어교과서》(일권, 일이

28) 대표적으로 정인승의 《표준문법》('68), 강복수·유창관의 《문법》('68)을 들 수 있다.

29) 북한의 우리 민족어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는 류창선이 처음 시도하였다. 관련 정보는 고영근('94: 495)를 보라.

학년용)인데 레쎬베쎬르 교육인민부 위원부의 인준을 받아 1937년 원동변강국립 출판부(하바롭스크)에서 출판된 것이다. 크기는 신국판, 모두 74쪽이다. 강제정과 계봉우는 《고려문전》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회에 참가한 일이 있고 특히 계봉우는 (10)에서 본 바와 같이 1930년에 《고려문전》을 비판한 바 있다.

(14) 강제정·계봉우의 《고려어 교과서》의 목차

가. 제일학년급

말하는 법과 쓰는 법/말이 되어진 법과 쓰는 법/쓰는 법과 넘는 법/한자 받힘으로 된 말들/두자 받힘으로 된 말들

나. 제이학년급

저른 말과 긴말/모음의 합하고 줄어짐에 대한 연습/말줄기와 말토/일흠으로 된 단어에 쓰이는 토

(가)의 일학년급에서는 자모 익히기, 발음법, 받침 분별하기를 다루었다. 자모의 이름은 《고려문전》과 같다. 적을 때에는 ‘쓰어라’와 같이 원형을 밝혀되 읽을 때에는 ‘써라’와 같이 발음하라고 하였다. 《고려문전》에서는 모두 적을 때나 읽을 때나 모두 ‘써라’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책에서는 그 사이 규정이 바뀌었는지 달라져 있다. ‘짓다(建), 굿다(劃)’의 어형을 ‘짚다, 꿇다’로 잡은 것이 특이한데 전자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어 경칭의 대상이 된다. 띄어쓰기는 “썩른말”을 단위로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어절에 해당한다. 맞춤법통일안의 것과 비슷하다. 받침은 28개인데 《고려문전》과 차이가 없다. (나)의 이학년급에서는 상대높임법, 문장종결법, 조사의 용법을 다루었다. 상대높임의 체계를 크게 높임과 낮춤으로 보는 것에는 오창환과 차이가 없으나 오창환의 “평교”와 “존대”를 “대등법”과 “존경법”으로 고친 것이 다르다.

철자법을 보면 《고려문전》에서 사용을 금지한 사이시옷이 부활되어 ‘일수’와 같은 예가 나오는데 사이시옷의 사용은 앞의 오창환의 교과서에도 볼 수 있었다. ‘ㄷ’ 불규칙활용의 ‘듣는다’를 ‘듣는다’로 적고 있는데 이는 오창환이 ‘듣다’의 어간을 ‘들다’로 잡은 데 연유한다. 오창환의 “原詞”를 “말줄기”, “吐詞”를 “말토”로 바꾸었다. 초급학년의 교과서란 점을 감안하여 쉬운 말로 바꾸지 않았나 한다. 이곳에서는 또 극단적인 어원 밝히기의 예가 많이 나온다. ‘나이’를 ‘남

이'로, '나쁘다'를 '낫쁘다'로, '수컷, 암컷'을 '송컷, 앓컷'으로, '불긋불긋'을 '붉잇 붉잇'으로, '뜨락'을 '뜰악'으로, '조금'을 '죽음'으로 적는 것이 그러하다. 이는 모두 극단적 형태음소적 원리를 지향하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철자법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교과서의 검토에 의하여 우리는 1930년의 《고려문전》의 철자법과 문법규범이 시행과정에서 같은 심의위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변색된 바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시행과정에서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규범을 만들어 이를 현실적인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모국어교육을 통제하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마무리를 지으며

지금까지 필자는 《고려문전》을 중심으로 1920년대에 수행된 소련 한인사회의 한국어문의 표준화운동의 전개양상과 보급에 관련된 문제를 건드려 보았다. 논의된 바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소련의 한인사회에는 이미 1910년대 중반부터 주시경의 철자법, 가로풀어 쓰기, 언어정화의 바람이 불어들어 그곳 한인사회의 모국어 교육에 응용되어 오고 있었다.

2. 한인들이 처음부터 지향해 온 철자법은 대체로 주시경과 김두봉의 형태음소적 원리에 기대고 있었다. 이는 한인들의 모국어교육이 본격화한 1920년대 전반부터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오다가 1929년부터 기틀을 삼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3. 소련 한인 사회의 표준화 작업은 1930년에 《고려문전》에서 완결되었다. 《고려문전》은 오창환이 저술하여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에 2차에 걸친 심의를 받아 간행된 소련 한인들의 철자법이자 규범문법서로 주로 교사용 참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4. 《고려문전》은 3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은 문자, 제2편은 품사, 제3편은 문장이다. 철자법에 관련된 규정은 제1편에 주로 실려 있고 제2, 3편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5. 철자법상의 큰 특징은 받침의 종류를 많이 잡아 의미부와 형태부를 밝혀주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지향하고 병서를 채택하였으며 가급적 소리나는 대로 적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표기법과 독법을 달리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국한문혼용을 한다는 원칙 아래 한자의 혼과 음에 대한 규정을 두고 문장 부호를 표준화하였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6. 문법부는 주로 김두봉의 《조선말본》에 기대되 자신들의 관점에서 비판·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품사는 8품사로서 김두봉의 체계에서 관사(흔히 관형사)를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7. 《고려문전》이 나온 뒤, 저자인 오창환과, 반대의 입장에 섰던 계봉우 사이에 토론이 전개되어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일단은 오창환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8. 《고려문전》의 철자법과 문법은 오창환의 《조선어문법교과서》('34)와 강채정·계봉우의 《고려어교과서》('37)를 거치는 동안 부분적인 굴절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나갔다.

《고려문전》이 가장 많이 기댄 문법서는 김두봉의 《조선말본》('16)이었고 《김더조선말본》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유길준의 《대한문전》('09),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09), 주시경의 《국어문법》('10), 안확의 《조선말본》('17), 김두봉의 《김더조선말본》('22)고 일본의 한국어학자 다카하시의 문법('09)도 보았으며 1920년대 후반의 반도 안의 철자법 논쟁과 동인지 《한글》 등의 기고문도 적지 않게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문전》의 철자법 제정과 문법의 표준화는 반도 안의 흐름에 같이 숨을 쉬면서도 이를 먼저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뒤의 반도 안의 표준화와 유기적 관련을 맺을 수 있었다는 데 그 특징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시의 한국어문의 표준화가 크게는 주시경 이래의 형태음소적 원리라는 큰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한국어문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해방 후에도 관련 업적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북한의 철자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간노(菅野裕臣)('97), <구소련의 한국학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논문.
고영근(1988), <이윤재-국어학사의 재조명>, 《주시경학보》 2.
_____(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도서출판 길벗.
_____(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_____(1997a), <열운 선생의 문법연구와 우리 어문관>, 《새국어생활》 가을.
_____(1997b), <한국어문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공동주제 “한국근대화 연구” 보고서.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출판부/탑출판사.
킹(R. King)(1991), A Soviet Korean Grammar from 1930, 한국말교육 3.
_____(1992). *Experimentation with Korean Writing in Russia and the USSR.*, ICK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ugust6-8, Washinton D.C.